

## 수필이 있는 풍경 사진



권영주  
하트 스캔 심장내과 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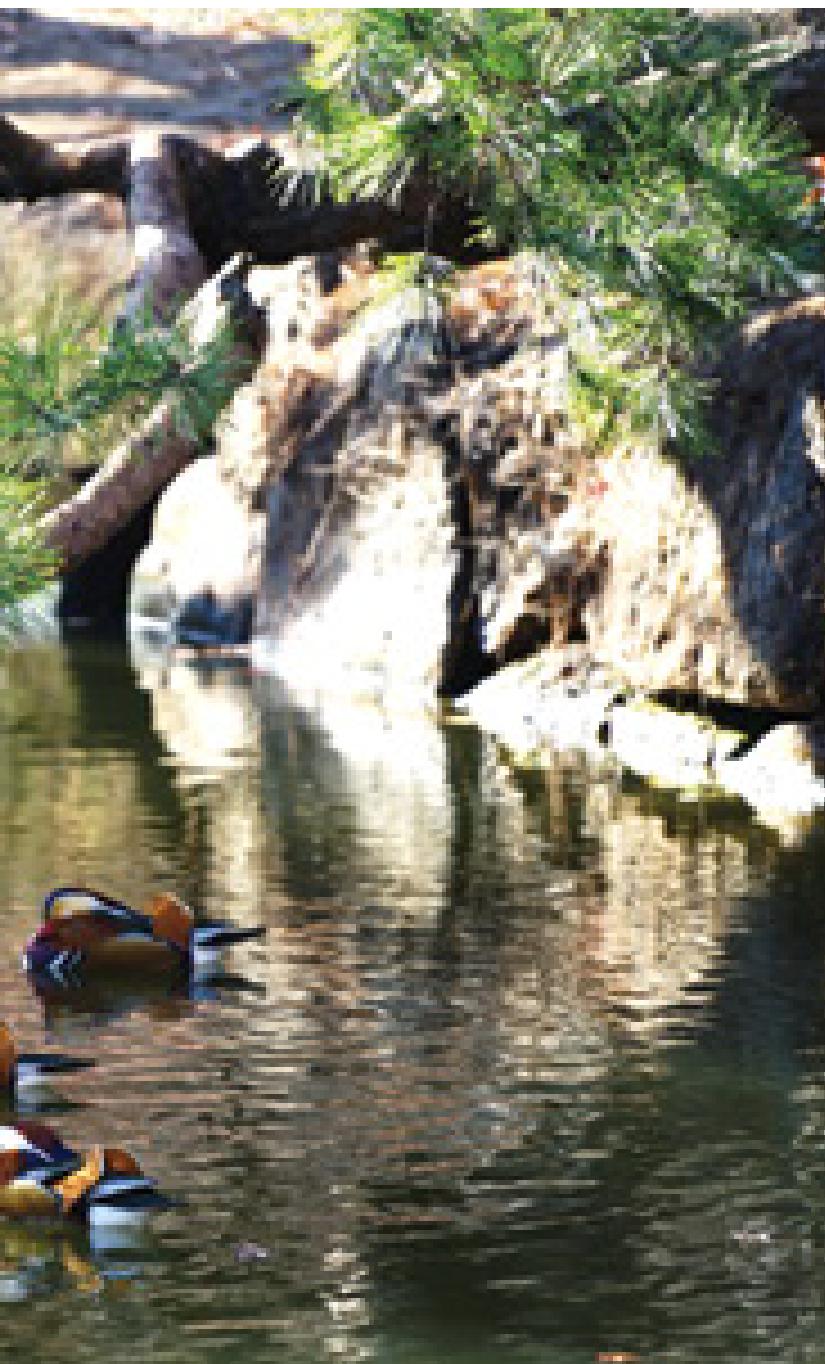
## 원앙새들의 낙원

이른 초겨울에도 따뜻한 날이 있다.

원앙새 군락지라고도 할 수 있는 춘당지는 원앙새들이 소나무 가지 밑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낙원이다.

원앙새는 천연기념물의 하나로서 보호해야하는 오비과의 새이다.

흔히들 부부애의 상징으로 이야기되는 이 이름다운 새들은 수컷들만 화려한 무늬로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조류생태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원앙금침이라 하여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이불, 베개의 무늬들도 아름다운 미래를 영원히 동경하는 부부애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인생의 쓰디쓴 고뇌의 풍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동안 본래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고 덧칠하여져 거울 같이 맑은 본래의 마음이 흐려져 심한 경우에는 본래의 거울은 깨어져버리고 깨어진 유리만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본래 면목일까? 아니다. 인간의 잔인한 탐욕 속에 녹아든 어리석음 때문일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탐욕 속에 숨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러워진 인생의 행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곱디고운 깃털을 갖고 한가하게 물속을 노니는 평화로운 원앙새들조차 먹이를 주면 일시에 모여 들어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적인 생물의 행태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 가을단풍과 첫눈

늦가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풍경은 갖가지 색깔로 수놓은 단풍나무일 것이다. 단풍나무는 이미 다 떨어진 잎사귀며, 치맛자락도 없는 활엽수의 민둥나무 속에서 곱디고운 한복을 차려 입고 맵시내는 어린처녀의 모습과 같이 주위를

빛내주고 있다.

늦단풍은 12월 초에도 떨어지지 않고 자기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다. 때로는 초겨울에 내린 하얀 첫눈과 함께 환상적인 동화속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

눈 내린 동화속의 오솔길을 걸어가며 그 마음은 이내 어린애의 마음속으로 돌아간다.



자연은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져다준다. 자연의 미는 그 어떤 인공의 미와 비교 할 수가 없다. 자연이 만들어진 자연미는 인간이 창조 할 수 있는 미의 근원이 되고 자연의 진리 속에서 벗어 날수가 없다. 자연 속에서 미의 원천을 바탕 보고 머리 속에 경외해야 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은 다만 자연 속에서 인간에 주

어진 천재적인 미적 감각을 떠올리고 수렴하고 펼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인생도 실체가 없는 진공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잠깐사이의 한 장면 속에 놓여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티 없는 어린애의 마음이 자기 거울인 것이다.